

No.2015061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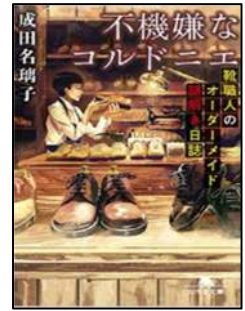
제목: 언짢은 코르도니에

저자: 나리타 나리코

페이지수: 319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5월 13일



<내용소개>

기묘한 의뢰가 오는 작은 구두 수리점.

구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작 미스터리

사랑하는 연인과 둘 만의 브랜드를 내기 위해 유학도 포기하고 귀국한 교우카는 연인 마사야에게 소개를 받아, [코르도니에(프랑스어로 구두수선공) 아마노] 라는 가게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러 간다. 하지만 알고 보니 [코르도니에 아마노] 에서는 구두 디자이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가게의 여러 가지 일을 도와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디자이너 겸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게 된 교우카.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낡은 구두수리점인 [코르도니에 아마노]의 꼼꼼하고, 조금 빠듯해진 성격이지만 확실히 솜씨가 뛰어난 점주 아마노 켄고, 구두를 만드는 것보다는 과자 만들기에 더 힘을 쓰고,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직원 마에조노 유우다이와 함께 구두를 맡기는 의뢰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해 간다.

교우카에게 들어온 첫 의뢰인 옥스퍼드화의 디자인은 바꾸면 안되지만 맘에 들지 않으니 수리를 해달라는 일 이나, 유령이 깃든 구두를 수리해 달라는 것이나, 하이힐의 굽을 떼어서 플랫슈즈로 해달라는 일 등 어딘가 이상한 의뢰가 들어오게 된다. 항상 “구두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구두주인의 문제를 자세히 알려준다”고 말하는 점주 아마노는 구두를 관찰하며 구두의 특징에서 주인의 사정을 알게 된다. 그렇게 구두주인의 고민을 차례차례 해결 해 나간다.

일반 사람들은 신발에 대해 애착이 강하지 않다. 매일 신고는 있지만, 외출 할 때 내 발을 지켜주는 도구 겸 패션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 할 뿐, 매우 소중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은 여러 켄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두의 주인은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 책의 신발들은 저마다 고민을 갖고 있는, 사정이 있는 주인들을 위해 구두수선공에게 주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정을, 그 고민을 풀었을 때는 모두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의 배경이기도 한 요코하마의 모토마치가 읽으면 읽을수록 가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코하마의 차이나 타운에 가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르도니에 아마노]

노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노에게 구두의 수선을 맡기게 되지 않을까?

<목차소개>

SHOES 1 새로운 운동화

SHOES 2 사이즈가 다른 스니커

SHOES 3 메시지 슈즈

SHOES 4 홀린 신발

SHOES 5 각오의 플랫폼슈즈

<저자소개>

나리타 나리코

2011년에 제 18회 전격소설대상 미디어 워크 문고상을 수상하고, 작가로 데뷔했다.

[달 만이, 내가 하는 짓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민상담, 두근두근, 수수께끼?]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5061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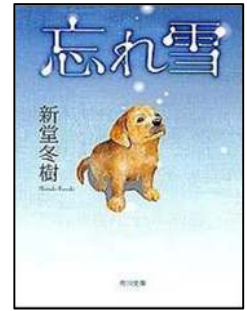
제목: 망각의 눈

저자: 신도 후유키

페이지수: 584

장르: 소설

출간일: 2005년 02월



<내용소개>

마지막 눈이 내리는 순간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아래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절실한 순간 누구에게든 소원을 빌고 싶어진다. 빌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단순한 물건에다가 빌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사람은 절실해지면 뭐든 하고 싶어 지는 법이다. 그 것이 별, 달, 혹은 돌멩이, 자동차 등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빌어서 만약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너무 기쁘고, 내가 빌어서 이루어졌다고 믿게 되어, 계속 빌게 될 것이다.

미유키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의 집에 맡겨져 사는 아이로, 어느 봄날 근처 공원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다. 이 강아지는 상처를 입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있을 때, 눈이 내린다. 엄마에게 “봄에 눈이 내릴 때,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들은 미유키는 강아지를 살려달라고 내리는 눈에게 빈다. 그러자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수의사의 아들인 사쿠라기가 미유키의 강아지를 살려주고 둘은 서로에게 이끌리게 된다. 이 강아지의 이름을 “크로스”라고 하고, 산책을 구실로 매일 근처 마리아공원에서 사쿠라기를 기다렸다가 그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유키의 가장 구원의 빛이 된다. 그러나, 미유키는 교토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사를 가기 전날 사쿠라기에게 “7년 후, 오늘 이 시간, 이 공원에 나를 데리러 와서, 프로포즈 해줘!” 라고 고백한다.

8년 후 둘은 재회하지만, 사쿠라기는 미유키를 알아보지 못한다. 또, 미유키에게는 미나미라는 약혼자도 생긴다. 둘을 만나게 해주던 “크로스”가 죽어버리고, 사쿠라기를 만날 이유가 없어진 미유키는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미유키가 떠난 후 모든 것을 기억해낸 사쿠라기는 다시 미유키를 기다리고, 결국 다시 그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둘이지만, 사쿠라기의 긴급수술로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이 재회하기로 한 날, 사쿠라기의 수술이 진행되던 시간에 그 공원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 미유키의 약혼자가 죽고, 미유키는 교통사고로 눈을 잃게 된다.

이 작품의 타이틀인 “망각의 눈” 은 봄에 내리는 마지막으로 내리는 눈을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인기그룹 2PM의 찬성이 주연으로 한국감독 한상희가 메가폰을 잡아 영화화가 결정이 되었다. 찬성은 한국에서 유학 후 일본으로 돌아와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로, 어렸을 때 만난 여주인공과 재회하며 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 인물, '윤태오'역을 맡았다. 2015년 가을 공개예정이다.

<저자소개>

신도 후유키

1966 년에 태어났다. 컨설턴트 사업을 하면서 1998 년 작가데뷔. 2003 년 [읽어버린 눈]이 대 히트,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듬해 [어느 사랑의 시]를 2006 년에는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야]를 발간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 "순수연애소설"이라는 신 장르를 세워 화제가 되었다.

No.20150610-003

제목: 심플하게 생각하기

저자: 모리카와 아키라

페이지수: 200

장르: 비즈니스 실용서

출간일: 2012년 05월 29일



<내용소개>

정말로 중요한 1%에 100%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실용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무언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쉽게 받아 들이는 특별한 것이 된다. 일을 실행할 때도 이 이론을 반영해 본다면, 주어진 일 그대로를 받아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된다. 다만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하도록 세심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찾는다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색안경을 끼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특히 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드 아이디어가 단순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울 것이고, 소비자들 머리 속에서 바로 떠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패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익이나 사원의 행복, 브랜드, 전략 등 많은 단어들 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히트 상품을 계속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히트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면 회사는 성장하고, 히트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회사는 망하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비즈니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심플한 법칙이다. "이익"도 "사원의 행복"도 "브랜드"도 히트상품을 만든 결과 생겨나는 것으로, 히트상품이 없으면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도 구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본질은 "유저가 정말 원하는 것을 계속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저의 요구에 답해줄 정열과 능력을 가진 사원 '만' 모아 그들이 속박 되지 않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 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많아져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이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지만, 정작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 타이틀에 실려 있는 팁들을 사용한다면 분명 '심플'하게 살아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비즈니스는 "싸움"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심플한 본질은? / 비즈니스는 "싸움"이 아니다 / 경영은 "관리"가 아니다 등)

제 2장: 자신의 "감성"으로 살자

(일은 스스로 받으러 간다 / "돈"이나 "명예"를 요구하지 말자 / "공기"를 읽지 않는다 / "확신"을 가질 때까지 끝까지 생각해라 / "불안"을 즐기자 등)

제 3장: "성공"은 계속 버려라

(회사를 "동물원"으로 하지 않는다 / 우수한 사람일수록 "싸움"을 하지 않는다 / "인사평가"는 심플한 것이 베스트 등)

제 4장: "위대한 사람"은 필요 없다

("통제"는 필요 없다 / 비즈니스에 "정"은 필요 없다 / "비전"은 필요 없다 / 심플하지 않으면 "전략"이 아니다 등)

제 5장: 쓸 때 없는 것은 전부 그만두자

("계획"은 필요 없다 / "룰"은 필요 없다 / "회의"는 하지 않는다 / "정보공유"는 하지 않는다 등)

제 6장: 이노베이션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차별화"는 노리지 않는다 / "퀄리티x스피드"를 최대화 한다 / "디자인"이 주도한다 등)

<저자소개>

모리야마 아츠시

1967년 카나가와현에서 태어났다. 1989년 츠크바대학을 졸업 후, 니혼티비 방송망에 입사. 컴퓨터 시스템 부문에 배속되었다. 인터넷 광고와 영상전송, 모바일, 국제방송등 다수의 신규사업을 일으켰다. 일과 함께 아오야마 대학 대학원에서 MBA 를 취득했다. 2000년에 소니에 입사했다. 2003년 한게임 재팬 주식회사(후 NHN JAPAN 주식회사, 현재 LINE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2007년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되었다. 2015년 3월에 LIN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고문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 4월, 영상미디어를 경영하는 CHANNEL 주식회사를 설립, 대표이사겸 사장으로 취임되었다.

No.20150610-004

제목: 자본주의 라는 수수께끼

저자: 미즈노 카즈오 / 오오사와 마사치

페이지수: 320

장르: 경제

출간일: 2013년 02월 07일



<내용소개>

거대한 스케일의 시점에서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의 대담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18세기 중엽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 확립되었고, 19세기에 독일과 미국으로 퍼져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 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와 동의어로 쓰이며,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쓰이든, 우리 현대사회를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자본주의”가 가장 어울릴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문화면에서 보자면 중국이나 이슬람권이 “문명”의 선진지대라고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는 주변지역, 즉 서유럽에서 제일 먼저 체계적으로 탄생했다. 그것은 맥스 베버와 칼 슈미트가 시사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매우 특수한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논리나 생활양식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는 거의 보편화 되어, 어떤 문화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회조차 실제로는 자본주의 인 것이다. 이 점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문화에서 독립한 중립적인 기계라고도 생각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한편으로는 매우 특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보편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양극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타이틀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회학자 오오사와와 경제학자 미즈노의 대담을 통해 자본주의의 수수께끼, 수수께끼로서의 자본주의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장 별로 주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전체를 읽기 전에 먼저 알고 싶은 장을 읽으면 보다 쉽게 읽혀질 것이다. 어렵게만 보일 수 있는 자본주의를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상황의 분석보다는 16세기말부터의 역사를 포함, 종교, 국가, 개인과의 관계 대한 배경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자본주의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는 테마를 역사관과 함께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할 수 있다.

<목차소개>

제 1장: 왜 자본주의는 보편화 되었나?

(문제설정 / 자본주의의 정의 / 자본주의는 보편적인 시스템인가? / 메디치는 어떻게 이자를 받았나 / 공간에서 시간으로- 이자를 둘러싼 이동 / 왜 이슬람권에서 법인이 생기지 않았는가 / 콜렉션과 박물관 / 12세기에 있어서의 이자 등)

제 2장: 국가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국가는 필요한가 / 바다와 육지의 대립 / 국가와 자본의 미래 / 왜 그리스는 EU에 가맹할 수 있었는가 / 패권국의 조건 등)

제 3장: 긴 21세기와 불가능성의 시대

(가톨릭에서 기독교로의 세력교대 / 영국과 스페인의 차이 / 중국의 번역 끝에는 세계 디플레이션이 / 두 개의 사회계약론 / 미국 시점에서의 자기규정 / '불가능성의 시대'의 경영적 의미 등)

제 4장: 성장 없는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큰 이야기의 시대 / 경영학은 가장 오류가 많은 학문 / 제로성장사회의 내막 / 경제성장은 버블의 목적지 / 자본주의는 최악, 그러나... / 미래사회의 두 개의 가능성 등)

제 5장: '미래의 다른 사람' 과의 행복론

('성장 없는 사회'의 행복이라는 것은? / 비 정규직 고용 증가의 배경 / 성장 없는 시대에 모험심은 생겨날까? / 현재의 자본주의에서는 용기를 시험하지 않는다 / 남은 것은 희망뿐이다 등)

<저자소개>

미즈노 카즈오

1953 년에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야치요증권 (현 미츠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 등을 거쳐 현재에는 사이타마 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연구과 객원교수로 있다.

오오사와 마사치

1958 년에 태어났다. 사회학자이다. 도쿄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 수료했다. 2010 년 4 월부터 개인잡지 [THINKING 'O']를 발행 중이다.

No.20150610-005

제목: 방송작가가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쑥쑥 기르는 사고힌트

저자: 야마나 히로카즈

페이지수: 269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5월 01일



<내용소개>

인기방송을 만든 방송작가가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키우는 방법!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게 된다. 신상품의 기획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람과 지내는 시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아이디어는 필요하다. 즉 아이디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 것처럼, 구두를 신는 것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매일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뇌는 익숙한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실행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급하고 부정적이기 좋아하는 업무환경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송작가인 저자는 '어떻게 하면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할까 보다는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전 단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을 한다. '발상 이전' 은 저자가 방송작가의 일을 해오면서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도달한 한 가지의 '사고방식' 이라고 한다. 아이디어의 원재료, 즉 씨앗을 키우는 것에서 아이디어가 생겨난다. 어떤 개성적인 발상법을 사용해도 원재료를 키우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이디어의 씨앗을 모아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상의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생겨난다. 하지만 오로지 생각만 하는 것 이전에 필요한 것은 '발상 이전'의 시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이디어의 씨앗을 모으는 힌트를 소개하고 있다. 35개의 힌트를 통해서 아이디어의 씨앗을 발견하는 요령을 아는 것만으로 매일매일의 별 것 없는 생활이 아이디어의 보물상자로 바뀔 것이다. 시점을 바꿔서 관찰하면 익숙한 일상도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 거기서 발견하는 아이디어의 씨앗이 발상의 베이스가 되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 내 기획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센스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제 1장: 새로운 견해를 손에 넣어라.

(줌 아웃 / 시점의 성(性)전환 / 외국인의 시선 / Something Insight / 감정버스 등)

제 2장: 가치관을 넓혀라

(납득하지 않는다 / 쓸모 없는 부분을 본다 / 현장을 이미지 한다 / 마리오네트 효과 / 위화감 등)

제 3장: 아이디어의 재료를 발견한다

(무자각인 행위 / 걱정을 바라본다 / 미래예고 / 선택의 부자유 / 갭을 좁혀라 등)

제 4장: 상상력의 녹을 없애라

(그 한발 앞 / 패러디 정신 / 세계퀴즈 / 가상 클레이머 / 자기사전 / 대비의 힘 등)

에필로그

<저자소개>

야마나 히로카즈

1967년에 태어났다. 고관프로젝트 소속 방송작가이다. [행렬이 생기는 법률사무소], [다운타운 디럭스], [타케시의 건강 엔터테인먼트! 모두의 가정의학], [가이아의 새벽], [The Cover]등 많은 티비 방송 구성작가이다. 현재, '마이니치신문' 토요일간에서 [티비 뒷어록]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아이디어를 훔치는 기술] 등이 있다.

No.20150610-006

제목: '불안정'과 '늦음'

저자: 오오히라 토오루

페이지수: 206

장르: 과학

출간일: 2015년 05월 29일



<내용소개>

사회에 가득 차있는 불규칙과 불확실함을 가까이 있는 불안정 현상을 통해 보는 불확실함의 의외의 효과

불확실함 보다는 '안정'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감각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불안정한 사회정세 등은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매 순간 불확실함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또, 인간은 기원전부터 긴 나날을 여러 가지 내기에 몸을 던졌고, 주식을 시작으로 한 금융상품의 손익에 울고 웃었다. 완전히 안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가져오는 자극이나 이익을 바라온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안정과 확신을 원하지만, 사실 '불규칙'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끔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유익한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토너먼트 전에서의 이변이나, 범인추적의 의외의 방법, 시간차에 의한 공격수단 등이 있다.

이 타이틀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불안정현상을 예로 들며 불확실함의 의외의 효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수리과학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불확실함을 자연과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사상이나 개념에 근거하여 될 수 있는 한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진동이나 노이즈 등 "불안정" 이나 정보 전달 등의 "늦음"이 가져오는 불확실함에 초점을 맞춰, 물리, 생물, 사람(개인이나 집단의 움직임 등)에서 사회(금융시장 등)에 이르는 의외의 영향이나 효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실제 예를 통해서 사실 "불안정" 이나 "늦음"이 반드시 피해야 할 악역이 아니라, 여기에 동반하는 불확실함이 때로는 유용하고 풍부한 현상이나 개념의 창출에 연결된다는 것을 전달 하고 있다. 여기서 "불안정" 이란 규칙적인 진동보다는, 좀 더 불규칙이라고 느껴지는 움직임을 표현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빠른 불규칙한 움직임에 "노이즈"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늦음"이란 사물이 시간대로 진행하지 않는, 불확실한 요인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만 그네, 생일, 복권, 토너먼트 전, 학급 안에서의 조 나누기, 인플루엔자 등 실제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물리나 수학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이 책을 통해 물리, 수학과 조금은 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불안정'과 '늦음'

(불안정이란? / 늦음이란? / 불확실함과 확률)

제 1장: 불안정

(진자와 관람차- 단진동 / 그네를 크게 흔들려면- 공명 / 흔들림으로 흔들림을 억제하다- 건물의 제동 등)

제 2장: 노이즈

(불규칙하고 빠른 흔들림- 노이즈 / 동전던지기와 노이즈 / 확률공명- 확률공명의 메커니즘 / 집단추적과 도피- 노이즈로 보다 빠른 사건해결 등)

제 3장: 확률

(확률에 어프로치- 통계적 어프로치 / 신변의 확률- 생일문제, 현실은 '생각했던 범위 내' / 그 복권 사야 하나? - 기대치, 게임이론 등)

제 4장: 늦음

(피드백 / 늦음의 영향과 효과- 의외로 피할 수 없는 요소, 늦는 것으로 시끄러운 상대를 조용히 시켜라 / 경제에 있어서 늦음- J커브효과, 돈이 되는 '늦음' 등)

제 5장: 불안정과 늦음이 만나면

(눈을 감고 똑바로 걷기- 밸런스 제어(하나) / 손가락 끝으로 봉을 세우기- 밸런스 제어(둘) / 다른 손으로 물건을 흔들기- 흔들림으로 흔들림을 억제하다 등)

제 6장: 불안정과 늦음의 수학의 이론

(노이즈의 이론 / 확률의 이론 / 순열과 조합의 문제 / 순열과 조합의 응용의 예 /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 조건부 확률, 현실문제의 응용 / 늦음의 수학기론 등)

최종장: 생명과 기계, 시간과 공간

(기계와 인간, 생명 / 개인과 전체 / 불안정과 늦음- 시간과 공간에서(둘) 등)

<저자소개>

오오히라 토오루

1963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나고야대학 대학원 다원주리학과 연구과 교수로 일했다. 1982년 홈기금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가, 해밀턴 컬리지에 입학, 1986년 졸업했다. 영국 캠브릿지대학 크라이스트 컬리지, 후지 제록스 근무를 거쳐 1993년에 미국 시카고대학 대학원 물리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Ph.D.를 취득했다. 소니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거쳐, 2012년 4월부터 근무 중이다. 전공은 [동요(動揺)]와 [지연(遲延)]을 포함한 시스템의 수리(數理)이지만, 연구대상 소재는 수리, 물리, 생물, 생체, 사회경제 등 폭 넓게 다루고 있다.

No.20150610-007

제목: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의 방식

저자: 카야마 리카

페이지수: 244

장르: 에세이 / 심리학

출간일: 2012년 05월 22일



<내용소개>

정신과 의사가 제안하는 스스로를 잃어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무언가에 휘둘린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친구에게 휘둘리고, 나이를 들에 따라 학력, 취업, 연인,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어렸을 때에야 크게 상관 없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게 되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휘둘리는 것은 사회의 가치관이나 "행복의 기준"에 사로잡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계속 다른 사람에 의해 휘둘리게 되면 일단 힘들다고 느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되고, 할 마음이 없어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특히 회사에서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4개의 요인에서 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4가지는 "일의 양적 부담", "일의 컨트롤",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의 컨트롤"로, 일에 있어서 스스로 일을 하는 방법과 방침을 정해 진행해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스트레스의 크기를 정하는 열쇠가 된다.

일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아이와 남편, 혹은 어머니 등에게 휘둘리는 여성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 확실히 잡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고 깨달았을 때에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단 "인생의 최대의 적은 휘둘림"이라고 깨달은 후부터, 극심한 "휘둘림"에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일상에서 진짜 '나'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확실히 자각한다면, 상대의 움직임에 맞추어 움직이며 "난 어쩔 수 없어"라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즉, 남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사라질 것이고, 나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점"에 휘둘리는 30대 후반의 여성

(점의 함정 /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연령 / 인생이란 몇 살이 되어도 고민하는 것 / 마인드 컨트롤의 3개의 프로세스 / 점이 틀리지 않는 이유 /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이라는 신뢰 등)

제 2장: "학력"이라는 주박

(인생의 승패는 초등학교 수험에서 정해진다!? / "학력"과 "풍요로운 인생"과는 다른 차원 / 학력과 출세의 관계 / 있어도 방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등)

제 3장: "건강"에 휘둘리는 사람들

(시대에 의해 변하는, 건강의 개념 / 광고탑이 만드는 건강상 / 영원의 불로불사는 없어 / 건강 세력의 스트레스 등)

제 4장: "다이어트"와 "나이먹음"에 휘둘리는 사람들

(건강을 좌우하는 두 가지의 요소 / 비만에 대한 공포 / 자기? 타인? 그것도 아니면 누구를 위해? / 나이를 먹는 것은 평범한 것 등)

제 5장: "돈"에 휘둘리는 사람들

(돈은 삶의 양식 / 돈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 평생 현역에 있어야 인생의 성공자 등)

제 6장: "엄마인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

("엄마로 사는 것"은 미덕 / "부인, 엄마, 나". 역할이 있어도 몸은 한 개 / 역할의 가벼운 모드 체인지 등)

제 7장: 휘둘리는 사람의 생태

(세상에 늦춰지고 싶지 않은, 지고 싶지 않은 사람 /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쓰는 사람 / 너무 소심해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 등)

제 8장: 휘둘리지 않고 살려면

(많은 화의 기본적 원인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에 있다 라고 알기 / 인간관계에서는 풀이 죽지말자 / 휘둘리기 전에, 자기가 제대로 말하자 등)

<저자소개>

카야마 리카

정신의과 겸 릿쿄대학 현대 심리학부 영상신체 학과 교수이다. 1960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도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살려, 현대인의 마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평론, 서브컬처 비평 등 폭넓은 장르에서 활약,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No.20150610-008

제목: 대화법에서 '성공하는 사람' 과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

저자: 마츠하시 요시노리

페이지수: 235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5월 14일



<내용소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비교로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간다. 가족이나 친구, 학교 또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말들부터 특별한 목적을 갖는 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인간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며, 이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며 동시에 기술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사람이며,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의사소통방식이나 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인 지식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표현이며, 현대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고 이야기 했다. 또한 CNN방송의 유명한 앵커 래리킹은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고 주장하며 화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기술'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무언을 이야기해야 좋을 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람과 있으면 답답하고, 잡담을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 타이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을 성공하는 사람의 예와 실패하는 사람의 예와 심리학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했고,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심리학을 배우고, 실적을 쌓으면서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저자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과, 세미나와 연수에서 만 명 이상의 사람이 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읽고 말하는 방법을 정말 “조금이라도” 바꾸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어떤 상대에게도 분위기가 업 되는 [대화법]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어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 성공하는 사람은 팔방미인, 실패하는 사람은 무뚝뚝하다. /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의 가치관을 칭찬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겉모습을 칭찬한다 등)

제 2장 호감도가 오르는 [듣는 법]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 성공하는 사람은 자랑거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고생담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등)

제 3장 신뢰받도록 되는 [거리를 좁히는 법]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눈을 피한다. / 성공하는 사람은 턱을 보고 이야기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에 정신이 팔린다. / 성공하는 사람은 흥미가 없는 화제에도 공감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질려버린다 등)

제 4장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알기 쉬운 [전달 법]

(성공하는 사람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이유부터 이야기한다. /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전달 법이 다르고,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게 전달한다. 등)

제 5장 일이 잘 풀리는 [대화법]

(성공하는 사람은 잡담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 / 성공하는 사람은 침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주 말한다. /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는다. 등)

제 6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풀리는 [멘탈]

(성공하는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점을 단점으로 바꾼다. / 성공하는 사람은 화를 참고, 실패하는 사람은 화를 전한다 등)

제 7장 성공하는 사람의 [말버릇]

(성공하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 성공하는 사람은 "네"를 자주 쓰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렇지만"을 자주 쓴다. 등)

<저자소개>

마츠하시 요시노리

1964 년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기타리스트를 꿈꾸며 상경해 26 세에 영업직으로 일하지만 실적이 나지 않아 해고 직전까지 갔다. 30 세에 카운셀러 양성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3 년간 실적이 부족하던 세일즈맨이 딱 한달 만에 전국 430 명중 1 위가 된다. 그 후 지점장으로 승격, 사회연수강사로 취임, 전 사원의 영업연수를 담당한다. 36 세에 나폴레옹 힐 재단으로 전직, 목표설정강좌 등 자기계발강사를 맡았다. 16 년간 약 1 만건을 넘는 영업과 많은 연수를 경험했다. 2007 년 강사로서 독립했다. [바로 성과가 나온다] 고 입 소문이 퍼져, 출판의 기회를 얻는다. NHK 에서 특집방송을 하거나, 잡지 취재 등 많은 매스컴에도 소개가 된다. 커뮤니케이션 종합연구소 대표이사. 커뮤니케이션 개선 컨설턴트.

No.20150610-009

제목: 귀여운 숨바꼭질

저자: 와라베 키미카

페이지수: 21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05월



<내용소개>

노래에 맞춰 신나게 숨바꼭질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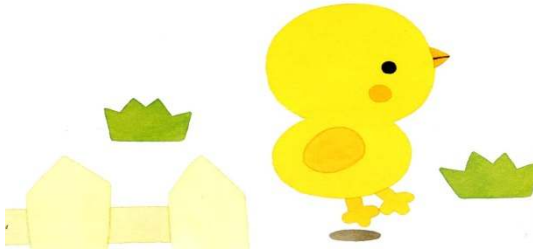
누구나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한 기억은 있을 것입니다. 숨바꼭질은 오랫동안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놀이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숨바꼭질 놀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숨바꼭질을 통해 엄마와 떨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대상영속성'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 숨을 장소를 탐색하고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여 관찰능력을 키웁니다. 이 때, 자기 눈을 가린다고 해서 술래가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찾은 순간, 아이는 분리불안이 해결되면서 희열감을 느끼는데, 이 때 '까르르' 터지는 웃음과 동시에 온몸에 엔도르핀과 세라토닌 등 행복호르몬이 생성되면 두뇌를 자극합니다. 즉, 숨바꼭질은 공간지각능력과 방향감각, 순발력, 관찰력, 사회성, 애착관계 형성 등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종합놀이' 인 셈입니다.

이 책에서는 귀여운 동물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작고 귀여운 병아리, 참새, 강아지라서 '귀여운' 숨바꼭질 일까,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이 '귀여운' 숨바꼭질 일까요? 물론 둘 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큰 코끼리나 나쁜 도깨비나 무서운 귀신이 숨바꼭질을 해도 귀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넘길 때마다 보이는 동물의 부분부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동물을 발견할 때, 아이는 큰 희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 숨바꼭질 노래의 악보도 실려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어른과 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입니다.

<본문 이미지>



どんなに じょうずに
かくれても
きいろい あんよが
みえてるよ



どんなに じょうずに
かくれても
ちやいろの ぼうしが
みえてるよ



だんだん だれが
めったった





<저자소개>

와라베 키미카

1950 년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났다. 추오대학 이공학부 재학 중에 일러스트를 그리기 시작해, 1974 년 대학졸업 후, 프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 1982 년 그림책, 캐릭터디자인 제작회사로서 주식회사 장난감상자(おもちゃ箱)를 설립했다. 어린이의 지능개발을 테마로 한 그림책작품을 다수 발표함과 동시에 보육용품관련으로도 많은 작품을 제공하고 있다.

No.2015061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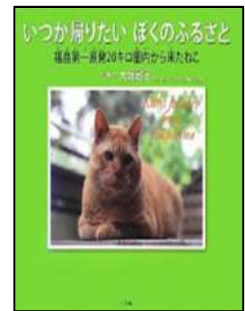
제목: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내 고향

저자: 오오츠카 아츠코

페이지수: 35

장르: 아동 비소설

출간일: 2012년 11월



<내용소개>

어느 날 고향에 혼자 남겨져 버렸고, 고향을 떠나와야 했던 고양이의 이야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동부해안지대를 덮친 쓰나미는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해일에 휩쓸려간 인적, 재산적 피해도 어마어마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일 것입니다. 쓰나미와 여진으로 인해 과열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 때문에 그 일대는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모두 떠나면서 후쿠시마는 인적 하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피난하고 난 후, 그 주위 지역에는 많은 개, 고양이, 소, 말 등 많은 동물들이 남겨졌습니다.

사진가인 작가가 재해 후, 20키로권내에 남겨진 한 마리의 고양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후쿠시마에서 온 피해고양이 키티의 이야기입니다. 보호되었을 땐 눈이 날카롭던 키티는 도쿄에 오고 나서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인터넷을 통해서 키티의 가족을 찾을 수 있었고,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키티의 원래 가족들은 센다이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집에 가보니 그 날의 지진으로 엉망진창인 채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해 황량해 보였습니다. 자연이 풍부하던 후쿠시마는 지금도 변함없이 아름답지만,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삶과 죽음이 그 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고양이 키티의 눈을 통해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미지>



ぼくのうちは、5代つづいた農家でした。
家で食べる野菜やお米は、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が、心をこめて育てたものばかり。
おじいさんの夢は、いつか自分が植えたひのきの木で家を立てることでした。
そのために、ひのき林も育てていました。

4



ぼくは、いろんなところでおひるねしました。
秋は太陽の光で、ほっこりあたたまった土のベッド。
夏はひんやりしたげんかん先。
縁にかこまれた家のまわりには、
ぼくのお気に入りの場所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

5



家に残されていたキティの食器

家族がおいていってくれたぼくの食べ物も、なくなりました。
なんでもいから、食べられるものをさがして、
ぼくは必死にさまよいました。

10



死んだねこの首輪が道ばたに落ちていた

犬も、ねこも、牛も、馬も、
世話してくれる人を、とつぜん失った動物たちは、
食べるものもなく、水もなく、つぎつぎと死んでいきました。

11



ぼくは、自分の家からはなれた
ところで助けられたので、
飼い主がだれなのか、
どこにいるのか、なにも
手がかりがありませんでした。
ぼくを助けてくれた人の家で、
半年まきました。
でも、家族は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そこで、ぼくは
新しい家族にひきとられ、
東京でくらすことになりました。

14



動物病院で検査をうけたら、ぼくは、
ねこエイズウイルス(ねこ免疫不全ウイルス)に感染しているといわれました。
ほかのねこにうつすといけなないので、
もう前のように、外に遊びに行くことはできなくなりました。
新しい家族は、ぼくのことをとてもかわいがってくれます。
でも、やっぱり、自由にかげまわれたおばあさんの畑が恋しいなあ……。

15

原発事故がなければ、ぼくはいまも、
みんなといっしょに大熊町でくらすしていた。
きっといまも、田畑をのびのびかきまわっていた。
畑仕事をするおばあさんのそばで。

どうして、ぼくたちは、ふるさとを失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だろう？
ぼくはいつか、ふるさとに帰れるんだろうか？



キチイは、いまも東京でくらすしている

32

33

<저자소개>

오오츠카 아츠크

1960년 와카시에서 태어났다. 조치대학 문학부 영문학과 졸업 후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걸프전쟁 등 국제분쟁을 취재했다. 1992년 이후는 유럽과 미국을 무대로 죽음과 맞서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자연이나 동물과의 유대감이 형성된 사람이나 사회를 재생하는 움직임을 취재하고 있다. 사진그림책 [안녕 엘마할머니]로 2001년 코단샤출판문화상 글미책상, 소학관 아동출판 문화상을 수상했다.